

# 두 얼굴의 공공조형물...설치·관리 철저한 검증 필요

노르웨이 왕궁에서 칼 요한슨 거리를 지나 시내 중심가로 걷다 보면 오슬로 중앙역이 나온다. '모든 길은 중앙역으로 통한다'고 할 만큼 오슬로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외국에서 온 관광객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발길로 연중 북적 거리는 핫플레이스다. 하지만 이 곳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오슬로의 명물이자 포토존으로 인기많은 '호랑이' (The Tiger) 때문이다. 마치 백두산에서 '방금 내려온' 듯한 조형물은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다.

호랑이가 오슬로 한복판에 등장한 것은 오슬로시와 민간기업의 콜라보 덕분이다. 1990년 대 말 부동산 회사 아이엔돔스파(Eiendomsspar)가 밀레니엄 기념하기 위해 오슬로시에 기념조형물 건립을 제안했다. 장소는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인기가 많은 중앙역이었다. 이에 오슬로시는 국제공모를 통해 노르웨이 출신의 조각가 엘레나 엔겔슨(Elena Engelsen)의 작품을 선정했다.

오슬로시가 엔겔슨의 구상을 선택한 이유는 오슬로의 옛 별명인 '호랑이 도시' (Tigerstaden)와 관련이 깊다. 노르웨이의 유명 시인 비오르손이 1870년 발표한 시 '마지막 노래' (Sidste Sang)에서 시골의 말(馬)을 안정된 삶을 상징하는 동물로, 호랑이를 위협하고 자비없는 도시로 비유하면서 오슬로는 호랑이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부터 오슬로는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도전에 맞서 싸우는 역동적인 도시로 각인됐다. 4.5m의 정동으로 제작된 호랑이 조각상은 시민들에게는 자부심을,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는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오슬로의 이웃인 스웨덴의 스톡홀름은 공공미술의 천국이다. 일찍이 '문화가 있는 삶'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유는 인구 97만 여명의 스톡홀름 시민이 자유롭게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스톡홀름의 거리를 걷다 보면 굳이 미술관에 가지 않더라도 세계적인 거장의 명작들과 마주하게 된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1950년 대부터 '문화복지'의 개념을 도입한 스웨덴 정부는 지하철 뿐만 아니라 공원, 광장, 횡단, 미술관 야외 공간 등에 예술성이 뛰어난 조각상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주력했다. 그중에서도 도심 속 공원이나 미술관의 야외공원은 시민들에게 미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대표적인 공공장소다.

국내에서도 색깔있는 거리의 조형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은 도시들이 많다. 국내 최초의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 워크' (Space Walk)를 개장해 불과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한 포항시와 김용호 작가의 '조용한 증식', 미국 출신 조각가 조나단 보로프스키(Jonathan Borofsky)의 '해머링 맨' (Hammering man)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품고 있는 서울시가 대표적인 예다.

오피스 빌딩이 밀집된 서울 여의도 IFC 앞의 '조용한 증식'은 단연 돋보인다. 높이 3m에 길이 6m, 25개의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를 우레탄으로 도장 처리한 작품으로, 시민들과의 교감에 포커스를 맞췄다. 패브릭으로 만든 수 십여 개의 방석을 조형물 주변에 설치해 점심 시간에는 인근 사무실의 직장인들이 답소를 나누거나 이 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쉼터 활용되고 있다. 단순히 조형물 하나를 설치했는데, 주변 풍경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을 '문화적으로' 바꾸는 마법을 이뤄냈다.

이번 시리즈를 위해 둘러본 국내외의 10여 개 도시들은 말 그대로 거대한 조각 공원이었다. 시민들은 미술관이 아닌, 지하철이나 터미널, 광장, 공원, 주

오슬로 명물·포토존 인기 '호랑이' 시와 민간기업의 콜라보로 탄생 공공미술의 천국 스웨덴 스톡홀름 거리의 작품들로 문화격차 줄여 헬싱키는 건축비 1% 미술품 설치

포항 '스페이스 워크' 100만명 찾아 여의도 빌딩가 자리 '조용한 증식' 풍경서 직장인 일상까지 바꿔

광주시·5개구 공공조형물 197개 시민 동선 충돌 등 애물단지 전략 철거 규정 없어 상당수 흉물 방치 '미술품 생애 주기' 등 대책 시급



헬싱키의 주택단지인 칼라사타에 설치된 스웨덴 작가 제이콥 다힐그렌(Jacob Dahlgren)의 조형물 'Early One Morning, Eternity Sculpture'. 마치 연필로 그림을 그린 듯한 10m 높이의 작품은 감각적인 색채와 리듬감 있는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택단지 등 도시 곳곳에 설치된 예술성 높은 조형물을 통해 일상의 여유를 누렸다. 이들에게 조형물은 단순히 감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치밀한 기획과 절차를 거쳐 '작품'을 선정하는 시스템이었다. 스톡홀름이나 오슬로, 헬싱키는 시 산하에 공공미술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퀄리티 높은' 작품들을 도시에 설치하기 위해 '예술품 컬렉션' (City Art Collection)과 건축비용의 1%를 미술품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1% 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헬싱키는 지난 2021년 창설한 '헬싱키 비엔날레'를 통해 매년 도시의 의미있는 장소를 주제로 조형물을 공모하고, 출품작들을 행사가 끝난 후에도 도시에 상설전시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노후화 된 작품들은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 광주의 조형물들이 떠올랐다. 비엔날레 개최도시이자 문화수도라는 위상에 걸맞게 수많은 조형물이 거리 곳곳에 자리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정체성이 모호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다.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광주폴리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가능성을 인정 받았지만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일에 맞춰 급조된 탓에 주변 건물이나 시민들의 동선과 충돌하면서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광주 중앙교의 '광주사람들'이나 금남공원 인근 '유동성 조절', 충장로 파출소 앞의 '99칸'이 대표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 미술관으로 불리는 스톡홀름 지하철의 내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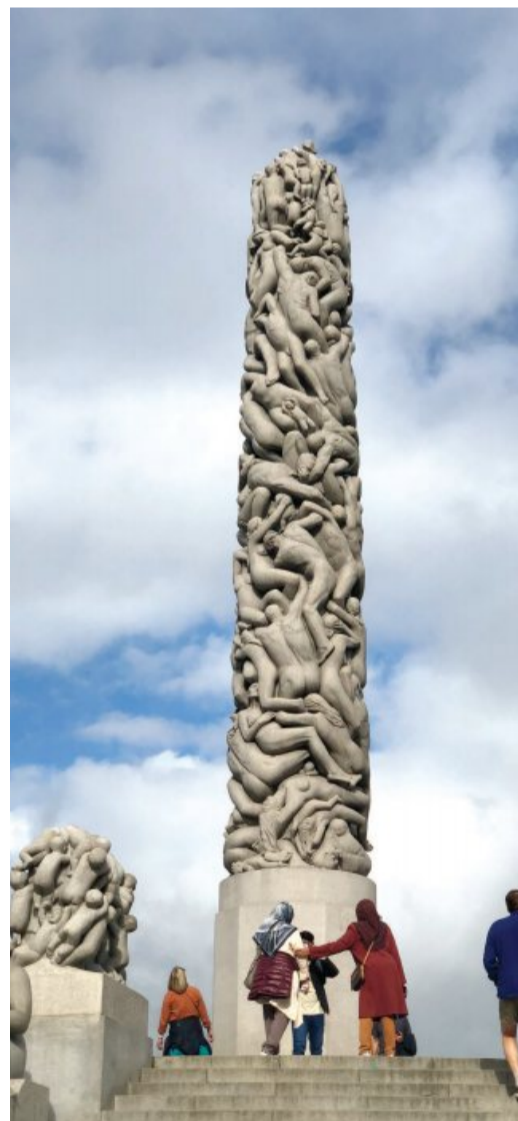
최근 광주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197개다. 이 중 시가 관리하는 조형물은 21개, 동구 39개, 서구 50개, 남구 13개, 북구 50개, 광산구 23개 등이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선 관련 조례에 의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 조형물의 수명이 반 영구적이라는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조형물의 설치된 규정되어 있을 뿐 철거는 명시돼 있지 않아 방치된 상태로 파손될 때까지 존치된다. 주변의 건물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

더라도 예술작품이라는 이유로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5년 이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작품을 존속시키거나 폐기하는 '미술품 생애 주기'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거리의 미술관'은 도시를 화사하게 물들이기도 하지만 적절하게 만드는 두 얼굴을 지녔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문화 광주에게 필요한 건 선택과 집중이다. '잘 만든' 공공 조형물은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끝> /글·사진=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슬로의 랜드마크인 비젤란 조각공원의 '모놀리트' (Monolith).



스톡홀름 야외 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 '바르베르그 거인들'.



서울 여의도 IFC 몰 앞에 자리하고 있는 김용호 작가의 '조용한 증식'



광주 중앙초교 앞에 설치된 '광주사람들'